

<한조삼성기봉> 연구*

임치균**

I. 서론	IV. 작가의 동일성
II. <한조삼성기봉> 내용 개관	V. <한조삼성기봉> 과 <옥환기봉> 의 관계
III. <한조삼성기봉> 과 <옥환기봉> 의 대비	VI. 결론

I. 서론

조선조 후기에는 다양한 소설 유형들이 창작되고 향유되었다. 이들 작품은 서로 향유층을 달리하기도 하지만, 상호 간에 교섭하기도 하면서 외연을 넓혀 갔다. 특히 이 시기에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장편 거질을 이룬 작품들도 있다. 이들 작품은 소설적 흥미 외에도 교훈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이들 작품들 가운데 일부가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관련 양상은 두 작품 또는 세 작품이 전·속편 등으로 이어지는 연작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려고 하는 <한조삼성기봉> 역시 대장편소설이다. 이 작품은 당나라 현종 시대의 황실을 배경으로 하여, 강왕과 위비, 조비, 설비가 인연을 맺어 가

* 본 논문은 한국정신문화 연구원의 2002년도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고전문학

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갈등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은 광무제의 한 실 부흥 과정과 광무제·곽후·음후의 결연 과정을 그린 <옥환기봉>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강왕을 비롯한 중심인물들이 모두 <옥환기봉>에 등장하였던 한나라 때의 인물인 광무제, 곽후, 음후, 백희 공주가 재생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작품 속에서 이들은 서로 일 대 일 대응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인물의 성격이나 내용상으로도 <옥환기봉>에 많이 기대고 있다 이러한 관계로 이들 작품이 연작으로 규정되기도 하였다.²⁾ 그러나 필자는 두 작품을 연작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 두 작품의 관계에서는 대장편소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연작 형태 이상의 문학사적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본고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한조삼성기봉>³⁾과 <옥환기봉>⁴⁾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둔다. 나아가 이들과 유사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기타 작품들을 함께 거론하면서, 이들 작품의 관계가 가지는 문학사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작품의 인물과 사건을 대비하는 작업이 우선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두 작품의 구조, 주제, 지향점, 작가 의식 등에 대한 면밀한 대비와 검토가 시행될 것이며, <한조삼성기봉>에 대한 작품 분석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두 작품 작가의 동일성 문제가 치밀하게 논의될 것이다.

<한조삼성기봉>은 현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 유일본이다. 14권 14책이며, 각 권 70~80면, 각 면 10행, 각 행 16~19자로 이루어졌다.

-
- 1) <옥환기봉>의 작품 내용 및 분석은 임치균, 「<옥환기봉>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18 (2002) 참고.
 - 2) 李昇馥, 「<한조삼성기봉>의 구조와 성격 - 前篇 <옥환기봉>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3 (2001).
 - 3) 14권 14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金起東編 『筆寫本 古典小說 全集』 25·26, 亞細亞文化社(1980)에 영인 수록되어 있다.
 - 4) 규장각 소장 30권 15책의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본으로는 김동욱 본과 조동일 본이 현존하고 있다. 그러나 兩本은 공히 2권 2책으로 내용이 매우 축약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II. <한조삼성기봉> 내용 개관

<한조삼성기봉>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당나라 현종 년간에 위성, 조희, 지명, 설흠 네 처사는 막역한 친구 사이로 강호를 유람하다가 동정호에서 선유하던 중에 잠이 든다. 꿈속에서 선관을 따라 옥황상제가 주재하는 조희에 참석한다. 조희에서 곽후는 전생의 원한을 술회하면서 남자로 태어나 광무제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뜻을 펴자, 옥황상제는 그 뜻을 받아들여 곽후와 관련된 인물들 모두를 인간 세상에 재생시킨다. 그 결과 곽후는 현종의 셋째 아들 강왕으로, 광무제는 性을 바꾸어 조희의 딸 수아로, 음후는 色을 바꾸어 추한 모습을 지닌 설흠의 딸 여주로, 전생에서 곽후를 두둔했던 광무제의 누이 백희공주는 위성의 딸 옥희로 태어나게 된다. 또한 전생에서 왕첩여과 윤보모에게 죽임을 당한 경왕과 경첩여는 위성의 아들 재성과 옥희의 시비 경쟁으로 환생시킨다. 왕첩여는 전 병부상서 양의의 서자 재왕으로, 윤보모는 윤교란으로 재생시켜 못다 한 인연을 잇게 한다. 지명에게 이 일을 잘 기록하여 후세에 이들의 전세 보응을 자세히 알게 하라는 사이에 이들은 鬼卒의 벽력같은 소리에 잠을 깬다.

후에 이들은 천상에서 정한 바대로 태어나고 자란다. 양재왕이 위부와 조부에 청혼하였다가 거절당하고 분해하던 중에, 위소저와 조소저는 강왕의 妃로 간택되어 궁으로 들어간다. 이에 양재왕은 백운도사의 도움으로 위소저를 납치하려고 한다. 백운도사가 위소저를 납치하여 돌아 올 때, 남악진군이 위소저를 구한다. 백운도사는 어쩔 수 없이 거지 행색이었던 윤교란을 위소저로 변장시켜 양부로 데리고 온다. 윤교란은 양재왕과 혼인을 하였다가 본색이 탄로 날 처지에 처하였으나 남아를 생산함으로써 무마된다. 강왕은 조소저와 먼저 혼인한다.

한편 강왕은 영칭의 무리가 발호하자 토벌하러 갔다가 남악진군의 처소에 머물러 있던 남장한 위소저를 만난다. 위소저는 죽을 위기에 처한 강왕을 구해주고는 함께 경사로 돌아왔다가, 마침내 정체가 밝혀져 강왕과 혼인을 이룬다.

그 동안 양재왕은 조비의 납치를 꾀한다. 그러나 미리 알고 방비한 조비는 숨고 대신 궁녀인 소옥이 잡혀 갔다가 조비인 척한다. 그리고 틈을 보아 윤교란을 회유하여 그녀의 도움으로 탈출하여서 양부의 모든 죄상을 밝힌다. 이 일로 양부의 인

물들은 모두 유배를 당하고, 백운 도사는 잡혀 죽을 뻔하다가 도망친다. 조비는 비로소 나타나 그간의 일을 간한다. 그러면서 위소저가 돌아와 강왕과 혼인하는 것에 대해 질투한다.

설소저는 얼굴이 못생겨서 설부에서 짝이 없을까 걱정하여 숨겨 둔다. 이로 인하여 오히려 대담한 여자로 소문이 나는데, 그 소문을 들은 강왕이 설소저와의 혼인을 추진한다. 길일에 설소저의 용모를 본 강왕은 실망을 하고 더 이상 설소저를 찾지 않는다.

도망친 백운은 유배지에 있었던 양재왕과 윤교란을 만나서는 그들 집이 불타는 것을 기회로, 두 사람을 경사로 데려와 조비의 어머니인 허부인에게 소개한다. 이때부터 허부인을 중심으로 백운도사, 양재왕, 윤교란에 의한 위비에 대한 모해가 심각성을 띠게 된다. 조비는 그러한 모해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윤교란이 주는 미혼단을 먹고는 중심을 잃고 위비를 모해하기 시작한다. 백운도사는 위비의 궁녀 난소의 모습으로 변하여 조비 소생인 백경을 연못에 빠뜨리고는 위비의 음모로 돌린다. 이들은 바른 말을 하는 조비 소생의 공주 선화를 죽이려고 하다가 미리 알고 대비한 위비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다. 또한 조비의 침전에 妖穢物을 넣고는 이 역시 위비의 짓인 것으로 꾸민다. 이들의 모해는 계속되다가 후에, 모든 것이 탄로나면서 조비는 본궁에 유폐되고, 윤교란과 백운은 죽임을 당한다.

양재왕은 도망치면서, 이 모든 것이 조비 때문이라며 역모를 꾀하는 글을 위조하여 조부를 모해한다. 황제는 노하여 조부의 인물들을 잡아드리라고 명한다. 이때, 벼슬을 마다하고 유람을 떠났던 조처사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다가 우연히 방 안에서 양재왕이 이러한 사실을 자문자답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붙잡는다. 조처사는 경사에 올라와 등문고를 무고함을 아뢰고 모든 사실을 밝힌다.

이후, 안록산의 난이 일어나고, 강왕은 결국 대위에 오르니, 곧 숙종이다. 숙종은 위비를 정비로, 조비를 귀인으로 삼고 조비 소생 백경을 태자로 봉하지만, 결국 백경을 동해왕으로, 조비를 동해태비로 삼아 본국으로 보낸다. 동해로 간 조비는 주야로 한하다가 죽는다.

숙종 대왕은 위비와 더불어 화락하며 태평성대를 이룩하며 만세를 누린다.

III. <한조삼성기봉>과 <옥환기봉>의 대비

소설에서 인물과 사건은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그 인물이 있기에 그 사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요소는 같이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다. 인물과 사건의 구성은 결국 그 작품이 지향하는 바를 알려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관련이 있는 두 작품을 다룰 때 이 두 요소를 대비한 결과는 두 작품의 변별성을 밝히는 데 좋은 실마리를 제공 할 것이다.

<한조삼성기봉>과 <옥환기봉>은 인물과 사건 구성에서 큰 줄기는 매우 유사하다. 두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서로 대응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중심인물들의 성격도 그다지 차이가 없다. 이는 <한조삼성기봉>이 <옥환기봉>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시대를 달리하여 탄생하는 것을 전제로 전개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한조삼성기봉>은 필요에 따라 인물과 사건들을 설정하거나 맡은 역할과 성격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조삼성기봉>에서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옥환기봉>과 대비하여, 작품의 성격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옥환기봉>은 광무제·음후·곽후의 결연 과정과 함께 광무제의 한실 부흥 과정이 매우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시대와 공간을 달리하는 <한조삼성기봉>에는 한실 부흥과정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한조삼성기봉>을 분석하는데 <옥환기봉>의 광무제 한실 부흥 과정에서 등장하는 인물이나 설정된 전쟁 등은 고려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⁵⁾

이해를 돕기 위하여 두 작품에 대응하여 등장하는 중심 인물을 도표로 제시해 보겠다.

5) <한조삼성기봉>에서 전쟁담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강왕이 남서 지역의 영청이 반란을 일으키자 진압하기 위하여 나서는 경우에 전쟁담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 전쟁은 결국 위소저를 만나기 위한 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전쟁담(한실 부흥 과정)이 작품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과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

<옥환기봉>	<한조삼성기봉>
광무제, 광후, 음후, 백희 공주	<조비>, <강왕>, 설비, <위비>
곽주(광후의 모친)	{허씨}(조비의 모친), [조비 위비 설비의 부친
윤보모	<윤교란>
왕첩녀	<양재왕>
경첩녀	경앵(위비의 시비)
	[백운법사]

* < > : 같은 역할이 바뀐 인물 { } : 재생하지 않은 인물 [] : <한조삼성기봉>에만 등장하는 인물

이상의 도표에서 두 작품의 인물 구성은 서로 대응하고 있으나, 그러나 몇몇 인물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같은 역할이 바뀐 인물에 대하여 살펴보자

<한조삼성기봉>에서는 <옥환기봉>의 광무제와 광후가 性이 바뀌어서 등장하고 있고, 부부 관계가 아니었던 따라서 중심 인물도 아님 백희 공주가 위비로 역할이 바뀌어 있으며, 궁중 여인으로 음후를 모해하였던 왕첩녀가 일반 가문의 양재왕으로 재생하고 있다.

성이 바뀌어도 강왕은 광무제, 조비는 광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⁶⁾ 양재왕 역시 끊임없이 위비를 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옥환기봉>과 인물의 특성이 같다 그러나, 성이 바뀌어 광후가 강왕으로 재생하나는 것은 <한조삼성기봉>이 <옥환기봉>의 광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는 <한조삼성기봉>이 광무제·음후 중심의 <옥환기봉>과는 전혀 다른 지향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곽희의 죽식은 총으로 대위를 맞고미 이시리오 음후의 옥환기봉이 삼심연분이
이 기특하실 썸 안야 양후의 덕이 내도흐므로 이에 이르미로터 음후에 천지국
식이 천하의 유명하여 당초에 상이 그 성화를 흠모하여 구호든 문제 누명훈
고로 후세에 시비 잇시이 광주에 츠탄한 말이 진실노 진실노 올치 아니리오⁷⁾

6) 이에 대해서는 이승복, 전계논문, 210-216쪽 참조

7) <옥환기봉> 권19.

광열황후 갖하니는 전천고후만세의 가히 쉽지 못흔지라 우인이 전을 지으니
일인반수도 섬개만흔 허언이 아니오 실적이 아니미 업는지라⁸⁾

뉴가는 본디 빈한하고 꺾시는 부귀호치하미 황녀를 불워 아니 흘 거시로디 텨 연이 미인 고로 뉴가의 드러가니 삼간모옥의 믹죽으로 고모를 봉효하야 본부 직산을 기우려 텨하를 도모하니 비록 텨명이 잇서 텨하를 어더시나 이 쏘흔 꺾시의 너조흔 공덕인들 엇지 적다 흐리오마는 이러툃 무궁흔 간고를 흥가지로 지너다가 나종의 저버리물 헛신 갖치 하니 꺾시의 원울하고 분예하미 엇더흐리오 산비히박흔 은정을 잇고 폐출흙은 오히려 상식나 무죄흔 티즈를 무고히 폐장하야 동희의 너치니 실노 후세 지스의 가연홀 비라 --- (중략) --- 역디 제왕을 의논하면 무신불의는 한광위 웃듬이 되리니 후인이 다 기연홀 비라 비록 꺾음의 연입이 텨정이라 하나 디기 스적을 살꺾진디 신세의 가련하미 만흐니 고어의 왕 일부함원의 오월비상이라 하니 꺾시의 원민이 엇지 천디의 쇼멸흐리오 유유이 원을 먹음고 직세의 한번 보복하기를 발원홀 시 츠시 대당 텨보 원년 초하 십오일 갑즈의 영쇼보전의 옥황상제 텨궁을 여러 십만 텨관과 삼십 삼 천 이십 팔 수와 스희 팔왕을 다 모호스 역디 제왕 공신 황후 명스 성인을 거느려 조회하니 상셔의 뭍은 운은 통누봉각의 가득하고 향풍이 진울하더라 --- (중략) --- 본부 직산을 기우려 텨하를 도모흐오니 비록 텨명이 잇다 흐오나 첩의 너조의 공덕인들 적다 흐리오 이러툃 간고를 흥가지로 지너다가 나종의 저버리물 헛신 갖치 흐오니 신첩의 원억하미 엇지 범연하리 잇고 인간 윤회의 참여흐오미 실노 것부지 아니 흐오나 구츄이 녀지 되지 말고 남지 되야 저로 녀지 되며 음양을 밧고 와 보원흙을 브라나이다 옥제 쏘흔 점두하시고 --- (중략) --- 짐이 낭완 꺾후의 발원을 조츄 소원디로 제도코즈 하느니 너희는 각각 도라가고져 하는 곳을 원하리⁹⁾

이상의 인용문의 내용을 통하여 결국, <한조삼성기봉>은 꺾후의 雪冤을 중심 내용으로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창작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옥환기봉>이 음후를 중심으로 광무제·꺾후·음후에 관한 역사적 기록에 대한 인과 관계를 설정

8) <옥환기봉> 권29.

9) <한조삼성기봉> 권1.

하고자 한 의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곽후가 설원을하고자 할 때, 가장 원수 같은 존재는 광무제이다. 이 때 전생의 신분인 여성으로 환생해서는 설원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작가는 성을 바꾸면서, 광무제를 <옥환기봉>에서의 곽후와 같은 신세로 설정한 것이다.

강목왕(광무제)의 음양을 밧고라 흐시니 여러 슈명하고 유리병의 감노슈를 썩려 낭원(곽후) 강목을 밧고는 진언을 넘흐니 이윽고 낭원의 작약흔 섬신이 변흐야 팔 척 장신의 환환흔 장부 되거늘 일습 건복을 입히니 작약흔 부인이 경각의 간의준미흔 호걸이 된지라 낭원이 불승대회흐야 반싱 뉴원을 썰치고 옥모의 화괴를 먹음어 옥제괴 머리 조야 스투흐 고 강목의 언건흔 장신은 경각의 변흐야 늑 척 향신의 전슈흔 녀지 되니 명흐야 곤의 보복을 벗기고 저른 단삼과 긴 치마를 입히니 옥모화티 슈려흐야 폐월슈화지태와 침어나안 지용을 가진 절티 미인이라 좌우 선관이 흡흡대쇼흐니 강목 크게 붓그려 참식이 만안흐야 감히 머리틀 드지 못흐고 음후는 면여토식흐야 말을 못흐는지라¹⁰⁾

이렇게 하여, 곽후는 당나라 현종의 아들 강왕으로, 광무제는 조처사의 딸로 재생하게 된다. 후에 조소저는 강왕과 혼인을 이루지만, 강왕이 등극한 후 폐출되는 신세가 되고 만다. <옥환기봉>의 곽후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옥환기봉>의 음후와 음후의 자리가 문제가 된다.

사실 <옥환기봉>에서 곽후와 음후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그리 나쁘지 않다. 곽후는 음후를 직접 모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해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음후가 싫기는 하지만, 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모해의 주동자인 윤보모를 타이르기까지 한다. 한때는 음후와 사이좋게 지내기도 한다. 그리고 모든 원인을 광무제에게서 찾고 있다. 그러나 결국은 음후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폐후가 되었다는 점에서 심각하지는 않더라도 설원을 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여기서 작가는 성의 바꿈 대신에 색의 바꿈을 이용한다.

<옥환기봉>에서는 음후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10) <한조삼성기봉> 권1.

천성이 유희정정하고 침묵언희하여 금년이 일즉 당의 나리지 아니며 가인이 언 소를 드른 지 즈그디 환화의 옥이 암실의 드러시니 광취 두우의 쏘이고 난취 공곡의 못쳐시나 향취를 맞춤니 감초기 어려오니 년기 십습의 춘광이 더욱 성하여 도 지요요하여 풍취쇄락한 기질이 비홀 더 업시니 아춤 단장을 마치미 무릉 습식 도 해 도로를 썩여는 듯 뇨지 향선 선훈 향슈의 잠긴 듯 웃고 말하미 습슈 눈이 녹는 듯하고 움죽이미 흥일이 부상의 오른 듯하니 천티만광이 기괴절세하미 당세의 독 보하고 만고의 무쌍하니 성명이 천하의 전파하여 구혼하 리 운집하여 락뻬 문의 들네디¹¹⁾

아름다움으로 남자의 사랑을 받은 여인에게 가장 큰 복수는 못생기게 재생시켜서 남자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게 하는 것 이상은 없을 것이다. 이에 <한조삼성기봉>의 작가는 음후의 색을 바꾸어 버린다

일몽을 어드니 일위 선녀 운관무의로 명월피를 차고 칠푼을 멩에하야 나려오니 화안이 절디경국지식이어늘 실 줍의 드러와 노 시를 향하야 지비하고 글오디 과인은 다른 이 아니라 한조 황후 음녀화로 광무의 버금 안히러니 한제의 은총이 일편되고 광후의 투협이 스스로 폐궁흙을 면치 못하얏더니 이제 윤희 보복이 나의게 도라와 강세하미 부인 슬하의 의탁고져 호오니 부인은 모로미 무이하시물 브라나이다 언파의 난디 업든 신령이 다투다 기형괴석의 가면을 가져 선녀의 낫치 쓰이니 음희 일성 이호의 우름 쇼릭 급하니 노시 처음은 선의 아름다운 모양을 갖거 하더니 놀나 씨드르니 침상일몽이라--(중략)-- 십삭만의 싱녀하니 희의 작인이 크게 범상하야 흔 곳 볼 거시 업스니 ---(중략)-- 점점 즈라미 일흙을 여쭈라 호고 즈는 난화라 하얏더니 슈 세의 맞쳐 두역을 험히 하야 흔 허 물을 버시니 곳곳이 엷고 붉은 점이 맞쳐 일개 귀형이 되야시니¹²⁾

녀쭈(설소저)는 횡동이 노둔하야 스오납지 아닐지언정 몸이 비둔하야 난 지 기년의 능히 거름을 움기지 못하는지라 그러나 노시 녀의 불미흙을 십분 민민하야

11) <옥환기봉> 권5.

12) <한조삼성기봉> 권1.

단장을 스치이 하고 지분을 과히 다스려 얽은 썸의 메워시니 더욱 흥괴 망측하야
 진납이 목욕 감겨 관 쓰임 곳튼니 좌위 고면숙시하야 위으를 못너 칭선하고 지 처
 식 한습 지어 니르디 “위 조설 삼 형이 일시의 농와홀 줄은 임의 덕벽 상의셔 신
 몽으로 이랏거니와 조화옹이 협성 구져 츠라하미 이 곳튼 용해 되야시며 음후의
 고은 식광으로 불미하미 이디도록 홀 줄을 엇지 알니오¹³⁾

음후는 너모 곱고 빛나기로 한제의 총을 어더시니 직세의는 그음업는 흥상이
 되야 설시된지라¹⁴⁾

예뻐던 음후가 흥상이 되고 그로 인해 총을 얻지 못하는, <옥환기봉>과는 반대
 되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곽후의 설원이라는 본래의 의도를 제대로 살린 것이
 다.¹⁵⁾

백희 공주를 음후의 자리였던 위비로 설정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
 다. 곽후의 현신인 강왕이 광무제의 현신인 조비와 음후의 현신인 설비를 설원하
 고자 한다면, 그들과 대가 되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 필요하게 된다. 이 인물로 곽
 후를 가장 잘 이해하였던 백희 공주를 등장시킨 것이다. 백희 공주의 현신인 위비
 는 <옥환기봉>에서의 음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결국, 맡은 역할이 바뀐 인물들이 사실은 <옥환기봉>의 인물들과 일 대 일 대
 응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인지, <한조삼성기봉>에서 보이는 이들 사
 이의 관계나 사건의 개요는 인물 구성의 유사성만큼이나 <옥환기봉>과 비슷하다.

1. 강왕이 조비와 먼저 혼인을 한다.
2. 강왕이 설비와 혼인한다
3. 강왕이 고난에 처했던 위비를 만나 혼인을 한다
4. 위비는 뛰어난 미모와 덕성으로 강왕의 총을 얻는다.

13) <한조삼성기봉> 권1.

14) <한조삼성기봉> 권3.

15) 작가가 <한조삼성기봉>에서 보여주는 의식, 즉 여성은 남성으로 재생하지 않으면 설원할 수 없
 고, 덕이 있어도 예쁘지 않으면 사랑 받을 수 없다는 의식에 대해서는 좀더 천착할 필요가 있다

5. 조비는 이에 대하여 시기하고 강왕을 미워한다
6. 조비 주위의 인물들이 위비를 모해하려고 하나 조비는 달가워하지 않는다
7. 조비가 마침내 미혼단을 먹고 위비를 모해한다
8. 결국 조비는 폐위되어 동해로 내쳐진다.

<옥환기봉>의 경우, 2만 빠져 있다. 이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곽후와 음후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조삼성기봉> 작가의 설정이다. 특히 1과 3의 경우, 실제로는 같은 날에 위비가 정미로 혼인을 할 예정이었으나, 후술할 양재왕의 모해로 혼인의 순서가 조비와 위비 순으로 바뀐 것이다. 이 역시 <옥환기봉>에서 곽후가 먼저 혼인을 하고 후에 음후가 들어오는 순서를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작가의 지향 의식은 다르지만 관계 인물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궁중에서의 사건 역시 <옥환기봉>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비가 주변 사람들이 위비를 모해하려고 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다가 미혼단을 먹고 본격적으로 모해하는 모습은 <옥환기봉>의 곽후의 그것과 매우 닮아 있다. 조비가 동해에 내쳐진 후, 그 곳에서 죽는 것 역시 <옥환기봉>과 다르지 않다. 광무제가 조비로 바뀌면서 <옥환기봉>에서 보여주었던 자신의 성격 보다는 곽후의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반면, 곽후의 현신인 강왕은 광무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맡은 역할이 달라진 인물 가운데 ‘양재왕’과 ‘윤교란’의 경우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궁중 여인의 신분이었던 왕첩여가 역시 남성인 양재왕으로 성을 바꾸어 일반 귀족 가문에 태어났으며, 후자는 일찍 부모를 잃은 여아로 설정되고 있다. 이 둘은 작품 속에서 부부가 된다. 이는 <한조삼성기봉>의 공간이 일반 귀족 가문으로까지 확대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옥환기봉>이 궁중을 배경으로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최왕의 전신은 왕녀의 흥흥 녀시라 한제를 흠모함미 겁흐나 공쥬 빅희 저를 비척흐던 원을 아니 갑지 못홀지라 --- (중략) --- 위 소저를 흠모흐야 간절흐 심스틀 부모기 고왈쇼지 만일 위시를 취치 못흐오면 결단코 츠싱의 인륜을 일우지 아니리

로쇼이다 한시 지왕을 지극지중히미 장중보옥 곳트야 혼 말도 어귀오미 업는지라 모즈 부뷔 일심이 되야 위 시를 탈취코즈 햏야 천방빅계로 싱각이 아니 미춘 곳이 업스나 결칙지 못하고 강왕의 길 일이 점점 갖가이 오는지라¹⁶⁾

인용문을 통하여 볼 때, 앞으로의 사건 전개가 분리와 시련을 중심으로 하는 ‘혼사장애’로 이루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마침내, 재왕은 강왕과 결혼하려고 궁중에 들어가 있는 위비를 납치한다 이는 재왕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옥환기봉>에는 등장하지 않는 요법사 ‘백운도사’를 등장시킨다. ‘백운도사’는 혼사 장애의 중심에 있다 줄거리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재왕의 부탁을 받은 백운은 위비를 납치하여 오다가 神人에게 빼앗기고는 걸식 하는 윤교란을 발견하고 위비로 변화시켜 양부로 데려온다. 양부에서는 조정에서 위비를 더 이상 찾지 않고 잠잠해지자 假위비와 재왕을 혼인시킨다. 후에 교란은 정체가 들통이 나지만, 生男을 하게됨으로써 무마된다. 그러자 재왕은 다시 조비에게 흑심을 품고 백운을 시켜 납치해오게 한다. 백운은 조비를 납치하러 갔지만 조비는 미리 계시를 받아 피하고 대신 궁녀 소옥이 납치되어 간다. 이를 시기하던 교란은 소옥의 계교에 넘어가 소옥을 탈출시킨다. 소옥이 돌아와 상계 모든 것을 고함으로써 모든 일이 밝혀진다. 위비는 남악진군의 구출을 받아 남북으로 개착한 후, 정벌 나왔던 강왕을 도와 공을 세우고, 마침내 정체가 밝혀져 강왕과 혼인을 이룬다. 재왕과 부친 양의, 모친 한씨는 모두 유배를 당하고, 백운은 참형을 당하려는 순간 도망친다. 떠돌던 백운은 고생하며 살고 있는 재왕 부부를 만나 데려와 조비의 모친 허씨에게 소개시켜준다. 이후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위비에 대한 모해가 시작된다.

<옥환기봉>과 인물이나 사건 구성에서 유사성을 보이던 <한조삼성기봉 이< 옥환기봉>에는 드러나지 않는 혼사 장애를 거듭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심상한 일이

16) <한조삼성기봉> 권2.

아니다. 더욱이 그것이 일반 가정과는 별세계로 인식되는 왕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실제적으로 왕궁을 대상으로 하는 양재왕의 이러한 행동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사건은 독자들에게 더 더욱 흥미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한조삼성기봉>에서 보이는 이러한 변화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옥환기봉>은 2권 2책으로 존재하는 이본이 2종 있다.¹⁷⁾ 이들 2종의 이본들은 광무제의 한실 부흥 과정보다는 광무제, 광후, 음후의 갈등 부분을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면서 善惡의 구분을 더욱 명확히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삼각관계는 일반 벌열가의 처첩 갈등을 황실로 옮겨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황실이라는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남녀의 갈등은 우리나라 소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소재인데, 아마도 이러한 독특함이 당시 독자층의 관심을 끌었을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있었기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룬 이본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실상 어느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들 이본의 존재는 당시의 독자들이 『옥환기봉』에서 보여주는 교육적인 측면(역사서에 정통하였음)보다는 남녀의 결합과 혼인의 완성이 라는 흥미로움에 더 경도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조삼성기봉>에서 인물들의 역할을 바꾸고,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을 설정하면서까지 혼사 장애 중심의 사건을 설정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불최의 여러 쫓이 다 언문 칙 (읽)기를 죠히 아니 여기는지라 선비 미양 권하야 보라 하야 곁오사디 --- (중략)--- 소학어너 너훈 갖흔 칙은 상상 아니 보지 못홀 거시오 그뵈 고금의 어진 선비와 축흔 겨집 이른 말과 황실의 그히 사름으로 하여곰 경발홀 듯흔거술 다 부디 즈로 볼 거시오 녀디연의 그튼 칙도 쏘한 맛당이 혼 두 번은 보아 전디 치란홍망을 아라들 것이니 그러면 거의 그 덕성을 기드리고 지식을 널일디라 이러흔 칙들을 어이 아니 보리오 이 뵈찌 혼인 부귀 신선 귀신 이런

17) 고려대학교 소장본과 조동일 소장본이다. 이들 이본에 대해서는 양민정 『朝鮮朝 奇逢類小說 研究』, 以會文化社(1995); 李昇勳, 「<옥환기봉>의 이본을 통해 본 역사소설 수용의 한 양상」, 『德成語文學』 10, (2000)에서 부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루었다

좁 니아기척은 다 볼 거시 아니이라¹⁸⁾

昭陽(癸亥, 1863) 12 월 내가 성남 直廬에 거처하며 긴 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이웃집에서 稗官諺書를 많이 소장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수삼 종을 빌려와 사람을 시켜 읽게 하여 들었다. 대개 한 편마다의 宗旨가 남녀의 혼인에서 시작하여 규방의 행적을 서술하였는데 서로 간에 차이는 있었으나 모두 거짓된 것으로 지리하고 변쇄하여 취할 만한 것 이 없었다¹⁹⁾

이상의 인용문에서 감지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 배척을 받기는 했지만, 남녀의 만남과 시련을 다루는 혼인 관계의 소설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역대연의’와 같은 책은 읽어야 할 책이고, ‘혼인, 부귀, 신선 이야기책’은 읽을 것이 못된다는 지적은 효용론의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이 속에서 당시 ‘혼인’ 등의 이야기가 매우 흥미롭게 읽혔음을 감지하기란 어렵지 않다. 실제로, 이렇게 소설의 유형 분류를 할 정도라면 이에 대한 관심이 없고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는 서유영의 언급을 통해 재확인된다.

<옥환기봉>에 바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한조삼성기봉>이 혼사 문제를 중심에 두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당시의 소설 향유의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²⁰⁾

특히, 이 속에서 위비와 조비 등이 탄생한 가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다. 이들은 자식들의 혼인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이들의 혼인은 <옥환기봉>과 달리, 왕실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가문의 문제로 옮겨지게 된다.

위 선싱(위비의 부친) 초분은 대스럽지 아니터니 후분은 다복하도록 일녀는 천

18) 『貞敬夫人李氏行錄』(최강현, 「정경부인이씨행록」, 『홍익어문』 12 (1993), 38~39쪽에서 재인용)

19) 歲在昭陽臘月 余寓城南直廬 長夜無寐 聞隣家多藏稗官諺書 借來數三種 使人讀而聽之 蓋一篇宗旨 始於男女婚媾 而歷敘閨房行蹟 互有異同 蓋架虛鑿空 支離煩瑣 固無足取(서유영, <六美堂記> 小序)

20) 위비가 남악진군의 제자가 되어 남북으로 개작한 후 전쟁에서 죽을 고비에 처한 강왕을 구해주는 사건과 <옥환기봉>의 광주와는 달리 조비의 모친 허씨가 위비를 모해하는 중심이 되어 모든 일을 주관하는 것 역시 흥미성 강화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 전자는 위비를 여성 영웅화하는 것이고, 후자는 갈등의 정도를 더 심각하게 하는 것이다

승국되되야 너셔는 군왕이오 일즈는 부미 되고 즈부는 만승교이니 다복함이 과연 타인의 십즈를 불위허리오 듯난 지 탄왈 위 선싱 복녹은 세의 업스니 인인이 당여 츠의 반드시 성현비와 위부마 곱허라²¹⁾

<한조삼성기봉>에서 혼인의 완성이 곧 가문의 영광으로 그려지는 대표적인 부분이다. 위비의 가문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문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혼사의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혼사는 결국 가문이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한조삼성기봉>은 <옥환기봉>에 바탕을 두면서도 공간을 일반 가문으로 확대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인물의 역할을 바꾸거나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켜 흥미성을 강화하면서 작가 자신의 의도를 살려낸 작품이다.

이와 함께, <한조삼성기봉>의 작가는 작품 곳곳에서 당시에 익숙한 유형들을 이용하여 작품에 대한 친근감을 더하기도 한다.

우선 작가는 작품 전반에 몽유록 구조를 원용하고 있다.

한담이 천만언이라 능히 밤이 다흠을 모르고 박벽를 즈로 권허더니 오리지 아
나 달이 산촌의 습고져 호고 계성이 악악하니 선두의 스후호는 동지 조으롭이
몽농하니 민망하야 고히디 강촌의 계성이 동호고 동방이 붉아오노이다 제인
이 브야호로 선창의 드러가 취취 깎허더니 한나라 제성의 윤희보옹이 썩를 맛
초아 급흔지라 옥누단계의 급흔 공식 내려 츠 야의 강심 중 취흔 녀슬 인도호
야 스 인이 일시의 괴몽홀 식 --- (중략) --- 영쇼보전의 옥황상제 텃궁을 여러 십
만 텃관과 삼십 삼 천 이십 팔 수와 스희 팔왕을 다 모호스 역디 제왕 공신
황후 명스 성인을 거느려 조회하니 상셔의 붉은 운은 룡누봉각의 가득호고 향
풍이 진울허더라 이 적의 위 쳐스 등 스 인이 일장 진몽을 조츰 일위 선관을
썩라 혼 곳 의 니르니 선악이 요요호고 치운이 줌중흔 가온디 혼 선관이 월픽
성관을 갖초고 즈슈 무의를 쓰어 표현이 내려와 읍호고 곱오디 널위 존형은
별닉후 무양호시나 금번 옥제 텃궁의 설조호샤 텃하 산신 수신 역디 제왕 신

21) <한조삼성기봉> 권7.

령을 모호시니 그덕 등도 소호삼은의 일뉘라 인간 명니의 분주함미 본밧기 아
 니라 학사 옥제 특별이 명초학사 수빅 년 밀린 공스를 처치학사 그덕 등의게
 맞지고즈 학느니 밧비 나를 조츠 옥제과 조현하라 --(중략)-- 언파의 스미 안
 으로서 우선을 너야 스 인을 향학야 혼 번 붓치니 스 인이 브람을 조츠 구름
 스이의 비등학야 공중의 오르니 표표탕탕학야 가는 바를 모를너니 혼 곳의 다
 닷거늘 스인이 정신을 슈습학야 스면을 슬피니 이 곳 텃궁이라 --(중략)-- 원
 성이 철턴학니 귀시 치로 두드리며 쇼리를 벽넉긋치 지르니 그 쇼리의 놀나
 썩다르니 흥일이 높혔고 강두 의 어선이 분잡하고 인성이 흰화학더라 텃상의
 괴특흔 경식이 녀넉흔 몽시 괴괴흔지라²²⁾

입몽, 인도, 좌정, 사건, 각몽이 있는 전형적인 몽유 구조이다. 몽유 공간이 천상
 의 영소보전이고 <옥환기봉>에 등장하였던 인물들이 본디 천상의 인물이며 다시
 인간 세상에 나가 인연을 맺게 될 것임을 몽유 구조를 빌어 자세히 밝힘으로써 작
 품 내용의 전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또한 몽유 내용이 <옥환기
 봉>이라는 대상물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든 것이어서 이 몽
 유 구조가 교술적이라는 몽유록의 장르적 속성도 아울러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위비가 위기에서 벗어난 후, 남악진군의 제자가 되어 술법을 익히고 마침
 내 남북을 입고 천정 배필인 강왕을 죽을 고비에서 구출하고는 정체가 밝혀져 혼
 인을 이룬다는 내용은 여성영웅소설과도 상통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조삼성기봉>은 작품 곳곳에 흥미로운 요소를 많이 배
 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당시 독자들에게는 꽤 익숙하였던
 것이었기에 친근하게 다가왔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조선 후기로 가면서 다양한 유형의 소설 작품들이 상호 교섭하는 양상의
 일단을 찾을 수 있다. 장편으로 이루어진 영웅소설이 있는가 하면²³⁾, 영웅소설에
 서도 가문소설적 요소가 함께 드러나기도 한다. 처음에는 이들 작품들의 향유층은
 달랐을 것이다. 홍희복이 <제일기안> 서문에서 “십지어 숙향전 풍운전의 뉘 가항

22) <한조삼성기봉> 권1.

23) <화산기봉>이 대표적이다

의 천흔 말과 하류의 느즌 글시로 판본에 기간하야 시상에 띠미하니²⁴⁾라는 언급에서 일단을 살필 수 있다. 그러나 소설의 상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서로에게 흥미로울 수 있는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교섭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한조삼성기봉>은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다양한 작품 유형의 구조와 내용을 원용하면서 <옥환기봉>을 바탕으로 인물과 사건의 수용과 변형을 통하여 더욱 통속적이고 흥미성을 추구한 작품으로 완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V. 작가의 동일성

서로 관계되는 작품에 대한 작가의 동일성 여부를 가리기는 쉽지 않다. 현재 학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두 가지의 상반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먼저 이 두 견해에 대하여 살펴보자.

古小說의 경우 어느 연작도 현재까지 작자가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의 전·후편의 作者가 同一人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밝힐 수는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들을 놓고 볼 때 한 연작을 이루고 있는 전·후편의 작품들은 모두 동일 작가에 의해서 창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²⁵⁾

<현씨양웅쌍린기>(玄氏兩雄雙麟記), <쌍천기봉>(雙鉤奇逢), <보은기우록>(報恩奇遇錄) 등은 <청백운>에서 <천수삭>까지와 같은 계열인데 속편이 있기 때문에 함께 다루지 않았다. 전편은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을 지닌 문제작이라 하겠으나, 더 길게 늘인 속편은 그렇지 않아 인습적인 가치관으로의 복귀를 표방하고 이미 있는 사건 유형을 부연하고 복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 점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전편이 인기를 얻자 다른 사람이 속편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 같다. 전편 말미에다 속편을 예고한 대목은 나중에 첨가했을 수 있다.²⁶⁾

24) 박재연·정규복 校註, 『제일기연』, 국학자료원(2001), 22 쪽

25) 최길용, 『연작형 고소설 연구』, 전북대학교사학위논문(1989), 26-27 쪽

26)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1984), 495쪽.

이상의 두 견해는 모두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으나, 실제적으로 작가의 동일성 문제는 작품마다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상의 견해가 연작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본고에서 문제 삼는 <옥환기봉>과 <한조삼성기봉>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도 따져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는 작품이라면 작가의 동일성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더구나 이 두 작품을 연작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더욱 그렇다.²⁷⁾

이런 의미에서 다음의 두 가지 전제를 설정해볼 수 있다.

첫째, 작품에 따라 작가가 동일인일 수도 있고, 별개 인물일 수도 있다

둘째, 작가의 동일인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외형상의 대비보다는 작품 내적 측면의 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한조삼성기봉>과 <옥환기봉>의 작가에 대하여 살펴보자.

<한조삼성기봉>은 <옥환기봉>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한조삼성기봉>이 바탕을 두고 있는 부분은 <옥환기봉>의 일부분이다. <옥환기봉>은 광무제가 한실을 復興하는 내용과, 광무제가 광후·음후와 결합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광무제가 한실을 부흥하는 과정은 역사서의 기록과 친연성을 가진다. 그런데, <한조삼성기봉>은 이 가운데 광무제·광후·음후의 결합 부분만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한조삼성기봉> 곳곳에서는 <옥환기봉> 가운데 이 부분의 내용에 바탕을 두고 서술하거나, 이미 있었던 일이었다며 기억을 환기시키면서 작품을 전개하고 있다.²⁸⁾

반면 <옥환기봉>에는 두 곳에서 <한조삼성기봉>을 연상시키는 기록이 발견된다.

휘(음후-필자 주, 이하 등) 도라오시미 중심의 기리 함한하여 동일한상 갖트니
데(광무제) 보시고 쇼왈 휘 오래 노흔물 보지 못헐리러니 금일 티부인 불화흔
를 식이도다 타싱의 남지되믈 발원흔 짐을 거절헐라 흠이시나 삼싱의 면치

27) 이승복, 전계논문

28) 이에 대해서는 李昇馥, 전계논문, 216~223쪽에서 자세히 논의하였다.

못허리니 천추만세의 서로 만나 즐기리라 휘 정식 부담허시고 공주 등은 웃고
든든이 후세의 상과 휘 다시 출세하여 숙년을 이오미 타설의 전허미 잇는이라
명일 상이 등티 부인을 인견허사²⁹⁾

맞춤닉 칩을 어더 혼 번 일그릭 가장 성실허고 다 고스를 의기흔 일이라 ---
(중략)--- 이 엇지 심상흔 글이리오 작주의 유의허미 만히 집다 이르리로다 허
러나 ---(중략)--- 비록 폐회나 쏘흔 장쳐 단쳐 간 별전이 잇슬지니 곽후의 본지
는 어이 썩히며 음식 형태전을 지으미 쏘 무슴 연고로 곽황의 전은 짓지 아닌
고 칭각건디 폐후의 별전을 지으미 말이 줌 언부언허미 지리허고 음식 음홍은
군공이 잇고 공업으로 전을 일운 비니 고이치 아니라 허려니와 연양 공주 본
전은 쏘흔 고로 싸히고 부지기죄로다 쇼설을 보고져홀진디 한도슴성쇠를 볼
지어다

세 임즈 스월일 용순 건일정 필³⁰⁾

‘他說’과 ‘小說’³¹⁾로 지칭된 것은 아마도 <한조삼성기봉>일 것이다. 그런데, 여
기서 주목할 것은 <한조삼성기봉>과 관계된 이 서술이 작가가 쓴 것이 아닐 가능
성이 높다는 점이다. 첫 번째 인용문 밑줄 친 부분은 문장 서술상 그 자리에 들어
가는 것이 매우 어색하다. “공주 등은 웃고 듣더니, 명일 상이”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더욱이 <한조삼성기봉>에서는 곽후가 남자로 태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광무제와 음후가 숙연을 이루는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옥환기봉>의 문맥과는 그 내용이 맞지 않는다. 작가라면 이 상황에서 밑줄 친 부
분과 같은 잘못된 정보를 넣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필요에 의해서
정보를 하나 삽입했다고 의심해볼 수도 있다. 아마도 “남자로 태어나겠다”고 발원
하였다는 내용에 힘입은 바가 큰 듯하다.

두 번째 인용문은 작품에 대한 평가 함께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작자의 유
의함이 깊다”는 말에서 “한조삼성쇠를 보랴”는 서술 역시 작가의 것이 아니라고

29) <옥환기봉> 권22.

30) <옥환기봉> 권30. 임자는 1852년으로 추정된다

31) 필자는 ‘他說’과 ‘小說’이라는 명칭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두 작
품의 관계를 논의하는 항목에서 상술하겠다.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옥환기봉>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을 표하고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 다른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 형태이다. “조그마한 거짓도 없다 며 <옥환기봉>에 대하여 자신감을 보이던 작가가 자기 작품에 대하여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이런 의심의 근거에는 필사기에 나타난 ‘용산 견일장’이 있다. ‘용산 견일장은 조선 후기에 고전소설을 필사한 곳이다.³²⁾ 그런데 이러한 필사기가 나타나는 것은 貫冊本이라고 한다.³³⁾ 그렇다면 위와 같은 정보를 삽입한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貫冊을 위한 정보의 제시인 것이다.

이로써 <옥환기봉>의 작가는 <한조삼성기봉>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옥환기봉>이 먼저 출현하였으며 그 후 이를 바탕으로 <한조삼성기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분명해진다. 다만 작가의 동일성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 처음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작가가 후에 그 속편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창작 의도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인물을 대비하면서 언급한 바 있다. <한조삼성기봉>에서 곽후가 남자, 광무제가 여자, 음후가 아주 못한 여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옥환기봉>의 인물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이미 인물과 사건의 대비를 통하여 이루어진 설명과 함께 이와 같은 뒤집음을 고려할 때, <한조삼성기봉>이 <옥환기봉>과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창작되었음은 분명해진다. <한조삼성기봉>은 <옥환기봉>을 ‘뒤집어 보기로 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문제의식이나 주제가 <옥환기봉>과는 전혀 다른 작품임을 알 수 있다.

<한조삼성기봉>이 <옥환기봉>의 인물이 재생한 것으로 설정한 것은 <옥환기봉> 앞 부분에 서술되어 있는 효무제 때의 戾太子와 주변인물들이 재생하는 것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태자와 주변 인물들은 江充의 모함으로 모두 죽는다. 그리고는 위황후의 소생인 여태자와 그 처자인 공손, 사랑제, 사황손이 각각

32) <벽허담관제연록>(25권 25책), <양현문직절가>(24권 24책) 등도 필사하였다(임치균, 『조선조 대장편소설 연구』, 태학사, 1996, 270쪽) 이 곳에서는 이들 작품에 대한 전문적인 필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33) 정명기, 「세책 필사본 고소설에 대한 서설적 이해」, 『古小說研究』 12 (2001).

광무제, 음황후, 곽황후, 태자로 윤회하게 된다. 그런데, 이들이 윤회하는 것은 <한조삼성기봉>에서와 같이 雪冤이 목적이 아니다. 미진한 인연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에도, <한조삼성기봉> 과 <옥환기봉> 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겠다.

또한 작품 창작 방식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 <옥환기봉>의 작가는 『한서』, 『후한서』 등 역사에 바탕을 두고 작품을 창작하고 있다. 그는 곳곳에서 『후한서』의 기록을 의식하거나, 반영하고 있다.³⁴⁾ 가장 적극적으로 작품 속에 역사를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방 서넉히 니르러 아모티로 갈 줄 몰나흐더니 빅의노인이 노방의셔 갈로쳐
왈 심쓰라 신도군이 낭인을 위하여 직희여시니 녀셔 팔십 이라 혼디 광뫼 즉
시 달여간이 신도티슈엄광이 문을 여러 못거늘³⁵⁾

進至下博城西 遑惑不知所之 有白衣老父在道旁 指曰 努力 信都郡爲長安守 去
此八十里 光武卽馳赴之 信都太守任光開門出迎³⁶⁾

장안의 드러와 직금오의 벼슬이 위의 승호를 보시고 덕양 탄식흐스 왈 거관의
당작 직금 오는 취처의 음녀해라 흐시니 이 두 일이 광무의 평심 소원이라
드 " 여 이 말이 스기에유전흐여 후세의 유명흐나³⁷⁾

後至長安 見執金吾車騎甚盛 因歎曰 仕宦當作執金吾 娶妻當得陰麗華³⁸⁾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옥환기봉>이 『후한서』를 그대로 직역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스기에 유전흐여 후세의 유명흐나” 라고 하며 자신이 『후한서』를 참고하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작가는 심지어 역사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34) <옥환기봉>이 역사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의미는 임치균 「18세기 고전소설의 역사 수용 일양상 - <옥환기봉>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8 (2002)에 상술되어 있다.

35) <옥환기봉> 권 6.

36) 『後漢書』 1, 12쪽

37) <옥환기봉> 권 5.

38) 『後漢書』 2, 405쪽

빈 부분을 인과성을 가진 사건으로 채우려고까지 하였다. 그는 <옥환기봉> 창작 과정에서 항상 역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작가는 <옥환기봉>에 대하여 “우인이 전을 지으니 일언반소도 섬개만흔 허언이 아니오 실적이 아니미 업는지라”³⁹⁾라고 할 정도가 되었다.

반면 <한조삼성기봉>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찾을 수 없다.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허구적 인물이다. 작품에서 현종 다음 황제인 숙종이 된다는 ‘강왕’을 『新唐書』에서는 찾을 수 없다. 또한 숙종의 비 역시 ‘張皇后’와 ‘肅宗章敬皇后吳氏’⁴⁰⁾로 되어 있어 작품에서 등장하는 위비, 조비, 설비 등도 가공인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의, 양재왕 등도 모두 허구적 인물이다. 즉, 이 작품은 양귀비와 안록산이 힘을 얻었던 어지러운 시기라는 시대적 역사적 배경만을 취했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에 바탕을 두었을 때, <옥환기봉>에서 <한조삼성기봉>을 대상으로 ‘타설’, ‘소설’로 지칭한 서술에 대하여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작품에 대하여 ‘他說’이라고 지칭하고 말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또한 ‘小說’이라고 하는 명칭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 대장편소설에서 ‘소설’이라고 하는 말은 <성현공숙열가>에서 찾을 수 있다.

닉 쏘 드르니 시서를 싫어하고 미양 소설을 조하 보며 언언이 벼슬과 미녀를
닐코라 상년의 봉구황을 쓴흔 적이 업스니 이거시 쏘흔 가흐냐⁴¹⁾

이는 작품 내의 부정적 인물인 유린을 질책하는 한 대목이다. 부정적 인물에 대해 “미양 소설을 조하 보며”라고 질책한 대목에서 일반 소설에 대한 작가의 부정적 의식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작가 자신이 바로 대장편소설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작가가 소설을 쓰고 있으면서도 소설에 대해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자신의 소설이 일반 소설과 매우 다르다는 인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⁴²⁾

39) 권 29, 40면

40) 『新唐書』 11 表箋, (中華書局, 1975), 3497~3500쪽.

39) <성현공숙열가> 권 5.

42) 임치균, 『조선조 대장편소설 연구』, 태학사(1996), 25~26쪽.

또한 권섭의 「先妣手寫冊子分排記」에서 <소현성록>을 “大小說”로 칭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여타의 작품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로써, ‘소설’은 같은 작품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의미, 또는 차원이 약간 낮은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옥환기봉>에서도 ‘소설’이라고 할 때의 정황을 보더라도 이러한 판단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옥환기봉>에서는 우선 이 작품이 역사에 대하여 얼마나 정통하였으며,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에 대하여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는 문장이 끝나자 이어서 “소설을 보고져홀진디 한도슴성쇠를 불지어다”라고 하고 있다. 여기에는 <옥환기봉>과 <한조삼성기봉>은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근거를 바탕으로, <옥환기봉>과 <한조삼성기봉>은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하더라도, 작가는 다른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V. <한조삼성기봉>과 <옥환기봉>의 관계

조선 후기에 산출된 고전소설 가운데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연작 형태로 존재하는 작품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 작품은 시공과 세대를 연속하면서 전편과 속편으로 구분되어 있다. 연작 <유씨삼대록>, 연작 <조씨삼대록>, 연작 <임씨삼대록> 등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경우, 전·속편 작가의 동일성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자연스러운 연작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연구 성과가 축적되면서 또 다른 형태의 작품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소현성록>과 <영이록>, <투색지연의>와 <여외록>, <금화사몽유록>과 <王會傳>과 같은 대조적 형태의 작품을 예로 들 수 있다

문제는 이들 작품을 연작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관계되는 두 작품에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서로 비슷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두 작품 사이에는 적지 않은 편차가 존재하고 있다. 문제의식도 다르고, 주제도 다르다. 필자는 이들 작품에 대하여 일단 ‘파생작’이라고 명명해보았다.⁴³⁾ 이들 작품을 연작으로 보려는 연구자의 주장도 있다. 그런데 이들 작품을 연작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도

연구자들은 그것이 일반 연작과는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송성옥은 연작의 개념을 좀더 넓게 잡아, 이러한 형태를 연작의 하위 유형인 ‘파생형 연작’으로 규정하고 있다.⁴⁴⁾ 그러면서도 송성옥은 “파생작은 파생형 연작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파생작인 「영이록」이나 「한씨삼대록」의 경우를 그것을 파생형 연작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⁴⁵⁾라고 하여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연숙 역시 <여와전> 계열의 작품이 일반적인 연작의 개념에서 벗어나 있다고도 할 수 있으나, 연작의 범위를 넓게 잡는다면 여러 가지 유형의 연작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이들을 ‘파생형 연작’으로 정의하였다.⁴⁶⁾ 이는 전적으로 송성옥의 견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송성옥은 ‘대응작’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대응작은 일반 모작과는 달리 대상 작품에 대한 강한 반론 혹은 비판적 성격을 지니는 작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송성옥은 <옥원재합기연>과 <창난호연록>을 대상으로 비교하면서, <창난호연록>이 <옥원재합기연>의 대응작이라는 결론을 내렸다.⁴⁷⁾ 소설사에서 이러한 형식의 작품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그러나, <옥원재합기연>과 <창난호연록>은 두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이 같은 것도 아니고, 내용도 관련된 것이 아니다. 단지 내용 구성이 유사할 뿐이다 따라서 필자가 생각하는 파생작과는 다르다.

필자는 여기에서 파생작의 개념과 범위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그러나 일단 연작으로 알려진 작품과 파생작으로 알려진 작품의 총량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어서, 파생작을 연작과 대등하게 놓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영이록>만 문제삼던 때보다는 훨씬 관련 작품이

43) 임치균, 「영이록 연구」, 『古典文學研究』 8 (1993), 348쪽. 당시에는 <영이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개념 규정이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이 아니다. 다만 독특한 형태의 작품들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새로운 명칭을 부여해 본 것이다. 그 후 파생작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대박사학위논문, 1994)

44) 송성옥, 「대하소설의 연작 유형에 대한 시론」, 『국문학연구』(1999).

45) 상계논문, 294쪽 각주 25) 참고

46) 池硯淑, 『<여와전> 연작의 소설 비평 연구』, 고대박사학위논문(2002), 18~19쪽

47) 송성옥, 「<옥원재합기연>과 <창난호연록> 비교 연구」, 『古小說研究』 12(2001).

풍부해졌으며, 앞으로 연구가 진척될수록 많은 작품이 발견될 가능성도 훨씬 높다 그렇다면, 새로운 형태의 작품이 나올 때마다 힘들게 연작의 범위를 넓혀 잡을 것이 아니라 그 형태에 적절한 용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필자가 다시 이렇게 생각하게 된 바탕에는 본고의 연구 대상인 <한조삼성기봉>⁴⁸⁾이 있다. <한조삼성기봉>은 <옥환기봉>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작품이다. 이승복은 이 작품을 연작 소설로 규정하였다.⁴⁹⁾ 그러나 위의 분석을 통하여 두 작품 사이의 편차 역시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필자는 처음 용어를 사용했을 때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파생작’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다.

A작품의 인물과 사건을 일부 그대로 수용하면서 다른 사건과 내용을 엮어A와는 성격이 다른 B작품으로 존재하는 작품⁵⁰⁾

이러한 정의가 매우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위의 정의에 좀더 구체적인 몇 가지 조건들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파생작은 모본의 내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따라서 전혀 다른 문제 의식을 갖는다.
2. 파생작은 모본에서 자유롭다. 따라서 시·공이 반드시 같거나 연결될 필요도 없고, 세계관이 같을 필요도 없다.
3. 파생작은 모본의 인물 평가에 구애받지 않는다
4. 파생작은 모본과 작가가 다르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작품을 일반적인 연작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48) <옥환기봉>, <한조삼성기봉>의 관계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작품으로 <취미삼선록>이 있다 이 작품 역시 <옥환기봉>과 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전혀 다른 작품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후고를 기약한다.

49) 李昇福, 전개논문

50) 임치균, 『조선조 대장편소설 연구』, 93쪽.

또한 굳이 연작에 포함시킬 이유도 없을 것이다. <영이록>, <여와전>, <한조삼성기봉>은 모두 이상의 조건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이들 작품은 역시 ‘파생작’의 범주에 넣어 ‘연작’과는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단순히 A작품에 잠시 언급되지만 할 뿐 그 작품에서 사건에 관계하지 않거나, 자세한 소개가 없었던 인물에 대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려고 하면 B작품을 보라”라고 하는 경우이다 이는 특히 주인공 가문의 딸이나 아들들이 다른 가문과 혼인을 이룰 때, 그들의 이야기는 혼인한 가문의 이야기를 찾아서 보라는 식의 소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인물의 단순 이동은 파생작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기본 입장이다.

조선 후기 소설사에서 ‘파생작’의 존재는 당시의 소설에 대한 창작 경향과 독서 양식에 있어서의 양상을 알려 줄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이다. ‘파생작’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시의 작가나 독자들이 기존 작품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거나,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작품을 그냥 두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소설 향유층이 의식이 매우 다기로 왔음을 의미한다.

VI. 결 론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한조삼성기봉>은 <옥환기봉> 파생작임을 구명하였다. <한조삼성기봉>의 등장인물들은 <옥환기봉>의 인물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는 있으나, 性(gender)과 色(beauty & ugly)의 바꿈을 통하여 그 지향 의식을 달리하고 있다. <한조삼성기봉>의 작가는 <옥환기봉>에서 불행한 삶을 산 淸后가 雪冤하는 것을 주제로 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작가는 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인물의 성격을 변형시키거나,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키기도 하였다 <한조삼성기봉>에서는 궁중 생활을 문제 삼은 <옥환기봉>과는 달리, 가문을 의식하고 있으며, 妻妾 갈등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혼사 장애 모티프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더욱 흥미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의식의 차이뿐만 아니라, <옥환기봉>의 작가가 『후한서』에 바탕을

두고 역사적 실존 인물을 중심으로 가급적 역사의 기록에 충실하게 작품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데 반하여 <한조삼성기봉>의 작가는 철저하게 허구적인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허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두 작품의 작가는 동일인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조선 후기에는 <한조삼성기봉>과 같은 파생작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영이록>, <여와전>, <왕회전> 등이 그 예이다. 모본에 바탕을 두면서도 모본과는 다른 문제 의식을 가지고 내용을 전개하는 이들 파생작들은 우리 소설 향유층의 적극적이고 다기로운 독서 행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책을 읽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내용을 뒤집어 보면서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 데까지 나아간 결과물이 파생작인 것이다. 파생작들은 모본의 인물 평가나 배경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그 세계관도 차이를 드러낼 수 있다.

조선 후기 고전소설에서는 연작, 파생작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을 통한 당시 고전소설의 향유 방식을 읽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고전소설을 읽다보면 여러 작품에서 유사한 내용을 드러내고 있는 경우를 찾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파생작 과 같이 모본을 바탕으로 하면서 작품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다. 일종의 ‘리믹스’, ‘패러디 라고도 할 수도 있는 이러한 방식이 조선 후기에 있었던 소설 창작의 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이와 같은 부분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한다

참고문헌

- 『신당서』, 中華書局, 1975.
-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대 박사학위논문, 1994.
- 박재연·정규복 校註, 『제일기연』서울: 국학자료원, 2001.
- 송성욱, 「대하소설의 연작 유형에 대한 시론」, 『국문학연구』, 1999, 294 쪽
- 송성욱, 「<옥원재합기연>과 <창난호연록> 비교연구」, 『고소설연구』12, 2001, 294 쪽
- 양민정, 「<옥환기봉>의 이본을 통해 본 역사소설 수용의 한 양상」, 『徳成語文學』10, 2000.
- 이승복, 「<한조삼성기봉>의 구조와 성격 前篇 <옥환기봉> 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
육』3, 2001, 216~233 쪽
- 임치균, 「영이록 연구」, 『고전문학연구』8, 1993.
- 임치균, 『조선조 대장편소설 연구』서울: 태학사, 1996.
- 임치균, 「18세기 고전소설의 역사 수용 일양상 - <옥환기봉>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8, 2002.
- 임치균, 「<옥환기봉> 연구」, 『한국 사상과 문화』18, 2002.
- 정명기, 「세책 필사본 고소설에 대한 서설적 이해」, 『고소설연구』12, 2001.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 서울: 지식산업사, 1984.
- 지연숙, 『<여와전> 연작의 소설비평 연구』, 고대 박사학위논문, 2002, 18~19 쪽
- 최강현, 「정경부인이씨행록」, 『홍익어문』12, 1993, 38~39 쪽
- 최길용, 『연작형 고소설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1989.

● 투고일 : 2003. 8. 5

● 심사완료일 : 2003. 9. 23

● 주제어(Key words): 한조삼성기봉(Hanjosamsunggibong), 가문소설(family novel),
옥환기봉(Okhwangibong)